



본지 김한웅 부장

11월 15일 개최되는 육계 의무자조금, 계육업계 향방에 결정적 단초 제공



희미하게 꺼져가던 육계 의무자조금은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을까.

지난달 23일 육계 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는 올해 안에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고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이달 15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물론 이같은 결정은 실무협의회에 앞서 가졌던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의 대표자 모임에서 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지금 육계업계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계열화 사업체들은 계열화 사업체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것이 과잉생산이 원인이 됐든, 소비 감소가 원인이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육계업계는 심각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사료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인상되고 있어 육계 생산비는 더욱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마땅한 대안조치 사실상 전무하다.

일부에서는 종계 감축 등 인위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2003년)의 학습효과로 인해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는 자체감축에 들어가고 있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육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는 앞으로의 업계 상황전개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출범을 통해 육계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리멸렬(支離滅裂)할 것인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인위적으로 감축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불황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인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결국 지금 겪고있는 육계업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스스로의 결단밖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육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는 앞으로의 업계 상황전개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출범을 통해 육계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리멸렬(支離滅裂)할 것인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 한국계육협회에서는 육계 의무자조금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임의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지난달 사업시행에 착수했다.

당장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고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해도 육계 의무자조

금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공백기간을 다소나마 매울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별다른 탈 없이 육계 의무자조금이 출범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왔던 4차례의 대의원 총회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며, 또 무엇이 우리의 육계 산업을 지탱해 줄 것인가는 육계인들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최될 대의원 총회는 육계인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